

광주 서구, 숨은 가족돌봄청년 찾는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6월30일까지 4257세대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방문·유선조사와 욕구조사 병행...맞춤형 지원 연계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가 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취업,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 발굴에 나선다. 서구는 6월30일까지 관내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청소년이 포함된 복지대상자와 잠재적 위기가구 등 총 4257세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정신건강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년을 말한다. 돌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학업 중단, 취업 포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숨은 가족돌봄청년 조기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서구는 사회

복지통합업무시스템(행복e음)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복지통장 등 주민참여형 발굴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 조사를 실시한다.

또 학교와 가족센터, 청년센터, 복지관 등 민·관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통합돌봄 가구뿐 아니라 언어 소통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행정 처리와 의료기관 동행 등을 맡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등 잠재적 위기가구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대상자 확인을 넘어 심리상태와 고립·우울감, 돌봄 부담 수준,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하는 욕구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학업·진로·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과 취업·진로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순 복지정책과장은 "가족을 돌본다는 책임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의 관심과 조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의 무게에 짓눌린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을 도입해 대상자들에게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북구,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공모 선정

취약계층 청년 구직 역량 강화 지원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청년 취업·통합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6억 5천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사회적기업, 민간기관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사업은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먼저 노동통합 분야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멘토링 등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입을 돕는 '내일을 만드는 청년 직무형 일경험 사업'이 추진된다.

쉬웠음 청년, 자립준비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업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 희망 청년에게 직무탐색 등 기초 단계부터 16주간의 실무 경험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일경험은 북구 소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20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고령 1인 가구에 전방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생활안전 통합돌봄 모델 구축 사업'이 계획됐다.

이 사업은 주택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100여 명의 건강 상태, 고립도, 주거 환경 등을 전수조사해 식사, 청소, 주거 환경개선 지원 등 맞춤형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구는 코끼리협동조합, 제이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돌봄 취약계층에게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제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노동통합·통합돌봄 분야 사업이 모두 선정되며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 문제 해결 의지를 인정받았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고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령층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세대별 맞춤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참여자 만족도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발굴에도 나선다.

또 지역 기업과 기관 참여를 확대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